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6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교황님 기도지향(2월)

복음화 지향: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의 사명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찾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곳곳에서 주님께 탄원하는 가난한 이들과 박해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어, 분열을 일으키는 폭력과 이기심의 멍에를 벗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여 새사람이 되게 해 주시도록 청합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17,5-8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복되다.>

화답송 시편 1,1-2.3.4와 6(◎ 40[39],5ㄱㄴ)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2.16-20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을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6,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17.20-26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영성체송 시편 78(77),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영성체 후 묵상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 구원에 희망을 두는 사람 되어야 - 손용환 요셉 신부 ♣

오늘 복음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 따지고 싶어집니다.

“주님, 당신은 왜 저희에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나요? 주님, 당신은 왜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셨나요? 주님, 당신은 왜 지금 우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셨나요? 주님, 당신은 왜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셨나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든 걸 위로받는데, 왜 부유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셨나요? 주님,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지금 칭찬받으면 한없이 좋은데, 왜 그들에게 불행하다고 하셨나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당신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난과 굶주림, 슬픔과 고통뿐입니까?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는 당신이 이런 것을 원하셨나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루카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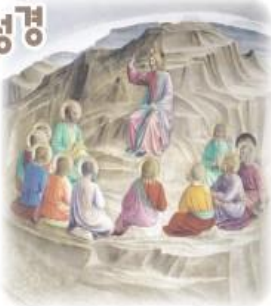
이 말씀은 **풍요보다 구원이 행복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단순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고통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부유해서 돈으로 위로받고 물질에 도취되어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난하더라도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하느님께 의지하며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고, 돈만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꿈꾸는 사람은 가난도 굶주림도 슬픔도 고통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람과 돈에 의지하지 말고, 하느님과 구원에 희망을 걸어야겠습니다. 구원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구원은 0원입니다. **구원은 살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가격은 0원이지만 구원은 영원합니다.

| 연중 제 6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산상 설교'
프라 안젤리코 작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루카 6,20).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재의 수요일(사순시기 시작)

재의 수요일(3월 2일)로 시작되는 사순시기는 성목요일 주님만찬미사 전까지 40일간 이어집니다.

'재의 수요일'이라는 명칭은 가톨릭교회가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는 데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날 재의 예식에서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재를 신자들의 이마나 머리에 얹음으로써,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창세 3,19 참조)는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며, 신자들은 단식과 금육을 함께 지킵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 3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

※ 재의 수요일에 사용될 성지가지를 성전 입구에 마련된 수거함에 2월 27일(주일)까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사순시기를 위한 15 가지 방법 (1 편)

부활을 준비하는 이 특별한 시기동안 보다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위해 도움이 될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 1) 미사에 참례하기 전, 그날의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포츠를 관람할 때 더욱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 응원하는 팀과 상대팀에 대해 미리 파악하듯, 미리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미사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일상의 '외딴곳'으로 잠시 떠나 보세요. 특히 성시간이나 침묵 피정 혹은 매주 한시간이라도 성체조배를 하며 침묵 안에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외딴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내적 소음을 줄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 3) 평소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성찰합니다. 너무 많은 옷을 사나요? 외식을 자주 하나요? 사순시기 동안 돈에 대한 단식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절약한 금액을 자선 단체나 가까운 곳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보세요.
- 4) 40 일의 사순시기 동안 소중한 사람에게 문자나 전화 40 회, 친절 40 회를 실천해 보세요.
- 5) 1 주일에 최소 한번은 평일 미사에 참례해 보세요. 새벽 미사나 저녁 미사, 꼭 본당이 아니더라도 가까이 있는 성당의 미사 시간을 찾아보세요. <https://cgatholic.org.au/parishes-and-mass-times/find-a-parish/>

캔버라교구 은퇴사제 로리 블레이크 신부님 부고

캔버라교구 은퇴사제인 로리 블레이크 신부님 (Fr Laurie Blake)께서 향년 85세를 일기로 지난 2월 9일 캔버라 병원에서 선종하셨습니다.

로리 블레이크 신부님께서는 1937년 10월 5일 Goulburn 에서 태어나셨고 1964년 12월 15일 골번 St Peter and Paul's Cathedral 에서 사제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Temora, Queanbeyan, Cooma, Tumut, Kenmore Hospital, Goulburn 등 NSW 지역에서 사목활동을 하시다가, 2003년 부터 2013년까지 Mary Help of Christians Parish(South Woden)에서 본당신부를 하신 후 2014년에 은퇴하셨습니다.

크리스토퍼 주교님께서는 로리 블레이크 신부님의 장례 미사를 2월 17일(목) 아침 11시 Our Lady of Fatima Catholic Church Goulburn 에서 집전하실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제직이라는 소명을 사시며 교구를 위해 헌신하신 로리 블레이크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글: <https://www.goulburnpost.com.au/story/7615326/quiet-unassuming-and-a-good-bloke-father-laurie-leaves-big-legacy/>



| 연중 제 6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7가지 손쉬운 방법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라도 즐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하루 5분, 엔진 공회전 하지 않기

→ 3.43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https://anu.zoom.us/j/5860472074?pwd=L1JMeGxUTUtscVROMXp1WURONDFVZz0>)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황창연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_초이스]

코로나 19가 단절시킨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방송일정(한국시간) [본방송] 월 13:00 /

[재방송] 화 14:00 수 19:00 목 08:00 일 15:00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일대기 도서 판매(\$16)

문의 : 각 소공동체장

□ 주일 미사 참례자수

1월 30일	성인 37 아이 21	2월 6일	성인 32 아이 10
--------	-------------	-------	-------------

□ 우리들의 정성 (2월 5일(토)~11일(금))

구민식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조성민	주정자
주진호							
교무금 : \$330 (9가정) / 봉헌금 : \$19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2월 13일, 연중 제 6 주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2월 20일, 연중 제 7 주일) 주정자 루치아, 공성은 루실라
- 체온측정·방명록·미사 후 성당 뒷정리 : (13일) 루카회 → (20일) 요한회 → (27일) 마르코회
- 미사 후 간식나눔·친교(월 1회) :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

□ 대교구 최신 코로나 19 방역수칙

- ① 실내에서 1명당 2제곱미터(sqm) 공간 확보(직계가족, 유아 제외) ②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12세 미만 제외)
- ③ 성당 입구에 비치된 Check In CBR 앱으로 방문자 등록 ④ 성당 입구에서 체온측정 및 손소독

♡ 백지윤 율리아나(16일) 학생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주정자 루치아(선교분과), 서은주 데레사(총무분과) 사목위원으로 봉사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두 분이 봉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